

“올 목표는 솔하임컵 출전”

〈미국선발-유럽선발 대항전〉

위성미 에비앙 마스터스 출전 “남자대회 때 되면 참가할 것”

재미교포 골프 선수 위성미(20·나이 키골프)가 “이번 시즌 목표는 솔하임컵 출전”이라고 밝혔다.

2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프랑스 에비앙-르뱅에서 시작되는 에비앙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위성미는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에비앙 마스터스에 나오지 못했는데 다시 출전하게 돼 기쁘다. 에비앙 대회에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개막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올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회원 자격으로 출전한 위성미는 2005년과 2006년 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나와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시즌 LPGA 투어에서 11개 대회에 출전해 5차례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위성미는 “꾸준한 편”이라고 자평하며 “나의 큰 목표는 솔하임컵 미국 팀에 뽑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와 다음 주 브리티시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솔하임컵은 미국 선발과 유럽 선발이 가람을 겨루는 대회로 올해는 8월21일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에서 열린다.

“남자대회 출전을 계속 하겠느냐”는 질문에 위성미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될 때 도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23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에서 열리는 에비앙마스터스 개막을 앞두고 열린 연습라운드에서 퍼트를 하고있다.

‘골프 황제’ 우즈 매너는 영~

클럽 함부로 던지거나 욕설
ESPN “매너 바뀌라” 지적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매너에서 이 대회에서 우즈는 안 좋은 샷을 날리고 돌아서서(turn) 클럽을 땅에 묻어버렸다(bury)”고 지적했다.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 리 라일리 기사는 23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 ‘타이거 제발, 골프 매너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그의 과격한 행위나 폭력적인 단어 구사를 비판했다.

라일리 기사는 “34세에 결혼해서 애가 둘 씩이나 있는 우즈는 언 1억달러를 버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운동선수인 그의 행위는 전 세계 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즈가 컷 탁략한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의 예를 들며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턴베리(turnberry) 링크스 골프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즈는 안 좋은 샷을 날리고 돌아서서(turn) 클럽을 땅에 묻어버렸다(bury)”고 지적했다.

“많은 어린이는 우즈처럼 스윙하거나 라인을 읽기를 원한다. 그들이 우즈처럼 클럽을 집어던지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한 라일리 기사는 “우즈는 F자가 들어간 욕설도 골잡 한다. 올해 CA펜 피인업에서는 사진 기자를 향해 ‘다음에 또 사진을 찍으면 그때는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라일리 기사는 “이는 우즈보다 앞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골프에 대한 무례”라며 “잭 니클라우스나 아놀드 파머 등이 그런 행

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톱 왓슨이 스튜어트 싱크에게 연장전에서 지고 나서 어렸는가”라고 우즈를 몰아세웠다.

1997년 마스터스의 예도 들었다. 당시 22세였던 우즈는 최종 라운드 15번 홀에서 한 아이가 그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어 토닥이자 클럽을 휘두르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라일리 기사는 “우즈가 어릴 때 클럽을 집어던지자 아버지인 알 우즈가 ‘타이거, 골프는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우즈는 ‘아빠, 나는 이기고 싶어요. 그게 나에게 재미’라고 답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클럽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브리티시오픈 대회 1라운드 9번홀에서 샷을 한 후 클럽을 던져버리고 있는 우즈의 연속사진 모습. /연합뉴스

순천고 장채환 3관왕 명중

故 고미영씨 뭍까지...
오선선 가셔브름 I 등정길 올라

전국남녀중고양공대회

순천여고 김민정 개인종합 銀

기록, 개인종합 1천358점으로 유환진(충남 병천고·1천351점·2위)·김우진(충북체고·1천348점·3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고부에선 김민정(순천여고)이 개인종합 1천355점을 획득, 장은민(강원 북평고·1천357점)에 2점차로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한편 22일 끝난 남중부 경기에선 최선(전남체육중)이 개인종합 1천371점으로 황대은(충남경천중·1천375점)에 이어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장채환은 23일 열린 남고부 50m 경기에서 344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나 전날 90m(314점)와 70m(344점)에서 각각 1위를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 세종고 4강행

미추홀기 교교여자소프트볼

세종고가 제1회 미추홀기 전국교교여자소프트볼대회 준결승에 올랐다.

세종고는 23일 인천전문대 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B조 1·2차전에서 충북 사대부고와 대전 디자인고를 차례로 꺾고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이날 1차전 경기에서 세종고는 5회말 1번 타자 홍우진(1년·유격수)의 3타점 러닝홈런에 힘입어 사대부고를 5-2로 누르고 1승을 거뒀다.

이어 열린 2차전에서 선발 원해련(3년)이 탈삼진 8개를 기록하며 완봉 역투, 디자인고를 7-0 6회 콜드승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2승을 거두며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종고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일고와 결승티켓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친다. 만약 세종고가 이기면 이날 오후 2시 결승전을 갖는다. /서승원기자 swseo@

지난 11일 남가파르맛에서 실족사한 고인에 하루 앞서 정상에 올랐던 오씨는 애초 곧바로 가셔브름 I 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베이스캠프(4천300m)에서 고인의 구조작업을 도왔다.

평소 고(故) 고미영씨와 ‘언니, 동생’ 하며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던 오씨가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을 안고 가셔브름 I 정상에 설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친선골프 출신원 시상 후 취소는 부당”



법원 “신의 원칙 벗어나”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출신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63)씨는 작년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출신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출신원상 훈다 CR-V’(시가 3천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훈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골프규칙에는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 종료후 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가 실격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골프대회는 회원 친선경기에 불과해 프로대회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을 하기도 어렵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4일(금)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학부 (09 : 50), 중등부 준결승 (11 : 50·KBSN SPORTS)

▲화랑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12 : 50·Xports) ▲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 (13 : 40·MBC)

▲KBS배 체조대회 (14 : 10·KBS1) ▲부산·IBK 기업은행 국제배구대회 <삼성화재 : 대한항공>(17 : 50·KBSN SPORTS)

▲윌리엄 존슨 농구 <대한민국 : 일본> (16 : 00·MBCESP)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9 아시아 투어 <맨체스터 Utd : FC 서울>(19 : 45·SBS)

▲LPGA 에비앙 마스터스 2R (21 : 00·SBS골프)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효율을 예측하는 전문가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할 **수완지구** **건축상담**
상업용지

월간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월당 470만)
200평 22억(월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지역
철의양도인택지
생활대중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접 122평 80평

전용가능한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기 6차선전
생선녹지 : 2800평-평등공단지단 큰가상담

우당입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월간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분	일정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 수업기간	2009. 9. 4(금)~2010. 2. 27(토) (6개월/24주)
· 수강료	₩298,000

· 모집인원 : 1단계 금요일/토요일 오전, 오후반씩총 20명
· 수업시간 : 매주 금, 토 오전반 9:10~13:00
· 수료후취업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발급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특기적성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 화 : (062)950-3584, 3585
· 이메일 : 011-614-4160
· 광주은행 148-107-307803(예금주: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 kwu.ac.kr.

2009 서울대 12명 합격
광주학원가 대표 브랜드

▶13년의 역사와 전통
▶중①~고③까지
▶국·영·수 단과전문

일곡 롯데마트 옆 **국민학원 ☎574-0101**

초·중등 국어, 독서논술, 특목고
중·고등 수리영역
중·고등 탐구영역
고등부 언어영역

광주 최강 강사진

봉선 마마트 옆 **국민영어학원 ☎672-0483**

무등빌딩임대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상업지역
·지하철역세권
·신형 주차시설 완비
·중앙공급식 냉·난방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